

로저 그린 박사, 미국 기독교, 세션 2 1, 신정통주의와 사회적 위기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미국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강의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신정통주의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세션 21입니다.

우리는 강의 번호 16, 신정통주의와 사회적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신정통주의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경에서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 드리자면, 기독교인들은 30, 40, 50, 6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우파의 근본주의와 좌파의 자유주의로 매우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좌파는 일종의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건강한 개신교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정통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주로 개혁자들과 특히 칼빈을 통해 해석된 정통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특히 칼빈을 통해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통파입니다. 20세기에 생겨난 성경적 정통파의 개혁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그것은 매우, 매우 강력한 지적 운동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적으로 과학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과 종교 사이에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경 비판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비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성경 비판이 반드시 성경의 몰락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과 도시 생활의 성장과 발전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을 교회의 적이라고 보지 않았고, 그런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비판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를 비판한다고 해서 당신이 성경적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허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달한 지점이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틀리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신정통주의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많은 신정통주의자들이 관여한 것은 정치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신학을 이해하고 성경 신학을 그들이 처한 세상의 정치적 현실과 상호 연관시키는 데 매우 예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적 이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적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했던 정치적 현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 현실에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직면했던 것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통주의가 직면했던 것입니다. 첫째, 신정통주의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 매우 강조했습니다.

20세기가 기독교의 세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등등.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죄악, 악, 그리고 인간의 죄악의 현실은 너무나 극명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 중 하나는 라인홀트 니버입니다. 아직은 이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여기 가운데 사진에 있습니다.

라인홀트 니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죄는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경험적입니다. 원죄는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경험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적인 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언가가 경험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경험적?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무언가가 경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경험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죄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됩니다. 홀로코스트를 보세요.

죄가 현실이 아닌 것처럼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경험적이므로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실제적인 것은 원죄입니다. 그래서 첫째, 죄의식입니다.

죄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새로운 정통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저 기독교 세기만 보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우리는 손을 잡고 Kumbaya를 내내 부르거나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전부였습니다. 아니, 새로운 정통파가 와서 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의 한계입니다.

모든 국가에는 한계가 있고, 확실히 모든 국가에는 미덕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는 때때로 자신의 물리적 존재에 모순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이웃의 물리적 존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자신과 이웃에게 모순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그것을 인식합니다.

이제, 여기서 약간 위험해진 두 번째 요점에서, 새로운 정통 신학자들은 모든 국가가 제한된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때때로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를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새로운 정통 신학자들은 미국을 쫓았고 한계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요점에서, 그들이 관련되는 한, 당신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저 새로운 정통 신학자들을 이해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들이 관련되는 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정확히 다루신 유일한 때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련되는 한, 그것은 그가 한 나라를 다루신 유일한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국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교회는 어떤 한 국가를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새로운 정통 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어떤 단일 국가와도 연관시키는 것에 조심하세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신을 그의 몸,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 대문자 C, 교회와 연관시키고, 그것은 보편적입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매우 잘했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 권력의 실제성. 정치적 권력을 볼 때, 당신은 그 정치적 권력을 무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정치적 권력에 직면해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그것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의 완벽한 예는 우리 중 일부가 본회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완벽한 예는 물론 디트리히 본회퍼입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더 이상 신의 섭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정치적 권력에 직면했습니다.

그 정치적 권력, 나치즘은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합법적인 정치적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법적인 정치적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고 권력을 세울 때 정하신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회퍼 세미나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디트리히 본회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연루되었습니다. 본회퍼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것은 본회퍼에게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되려면 그 정치권력이 권력의 경계를 넘어 독일의 구원, 서양 문명의 구원을 위해 무너져야 한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정통 신학자들은 실제로 정치 권력의 현실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정치 권력의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가리개를 쓴 기독교 단체, 교회 또는 교파에 반대했습니다. 20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어하지 않거나 나치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신정통파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그게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이미 이 사람들과 이것을 언급했지만, 네 번째는 이 신정통파가 미국 개신교 내에서 위대한 지적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신을 경배할 때 신을 경배합니다. 마음을 사용하여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주변 세계에 봉사할 때 신을 공경합니다. 그것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매우 강력한 지적 전통과 지적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으로 신을 경배하고 우리의 정신을 사용하여 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제

, 그들은 미국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근본주의가 일부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지만, 반지성적인 미국 근본주의가 일부 있었고, 신정통주의자들은 그것이 성경적 방식이 아니고, 기독교적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신정통주의를 특징짓는 몇 가지 사항이며, 그것이 가져올 것입니다.

네오-정통주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선 배경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정통주의, 운동으로서의 네오-정통주의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이 과정에서 많은 운동을 보았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칼 바르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신정통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6페이지 개요의 B, 칼 바르트의 중요성입니다. 바르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여기서 내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칼 바르트의 중요성은, 그런데, 바르트이고 바르트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칼 바르트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칼 바르트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종종 듣는 것처럼 바르트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르트인 건 분명하죠. 그리고 그런데, 이건 아무 것과도 관련이 없으니, 어떤 연관성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고든 칼리지에는 윌리엄 빌러 박사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스위스 바젤에서 칼 바르트 밑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마지막 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배링턴에서 가르쳤고, 합병되기 전에 올라왔고, 1981년에 여기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서 명성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고, 마지막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르트 밑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마지막 학생은 아니었지만, 칼 바르트 밑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마지막 미국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정말 그의 주목할 만한 업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럼 칼 바르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삶을 조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지표만 살펴보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의 신학은 여기 미국 신정통주의에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 좋아요, 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싶은 것은 그가 스위스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스위스 시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몇 분 후에 볼 이유로 나중에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적 개신교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대학에 다녔고, 대학에서 개신교 자유주의가 독일 대학을 어느 정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그런 걸 믿었습니다. 슬라이어마허는 자신의 연구와 기타 면에서 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란 전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목사가 되었고, 1차 세계대전 중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세계대전을 관찰하고 1차 세계대전을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그는 자신이 훈련받은 개신교 자유주의와 1차 세계대전의 현실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 두 가지를 전혀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고전적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었고, 그는 그것이 파산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1차 세계 대전 중 목사로서 위대한 발견을 했을 때 그는 어디로 갈까요? 그는 어디로 갈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가 자라면서 접한 자유주의 신학에 반박하기 위해 무엇에 의지할까요? 그것이 그의 삶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는 성경으로 향합니다.

그는 성경으로 가서 성경에서 그가 이상한 새로운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가 익숙하지 않은 세상이었고, 그의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개신교적 훈련과 성경 비판에 대한 강조로 인해 성경은 거의 제쳐두었습니다. 칼 바르트는 성경으로 가서 이 이상한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그는 성경이 신의 타자성과 인간의 죄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두 교리는, 우리가 그의 신학에 도달했을 때 알게 될 것이지만, 타자성, 신의 초월성, 인간의 죄성입니다. 성경은 신과 인간의 일종의 일체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암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 교리 중 하나였습니다. 신은 인간과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얻은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을 거룩한 타자로 말하고,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성경의 이런 종류의 이상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그는 물론 개신교 자유주의에서 들었을 그의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해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 대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여백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특히 칼빈이 이 위대한 성경적 메시지, 성경의 이상한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갈 것입니다. 그는 개혁자들에게 갈 것입니다. 이제, 그는 키르케고르에게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덴마크 키르케고르, 기독교 실존주의입니다. 그는 또한 키르케고르를 읽고 연구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주로 종교 개혁 자료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칼 바르트에 대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8년에 그는 해설을 썼습니다. 그가 성경의 이상한 신세계를 발견했을 때, 그를 정말 사로잡은 책 중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1918년에 그는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18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1921년에 다시 출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그 해설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설의 이유는 다른 독일 목사들과 로마인에 대해 아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해설은 다른, 다른, 다른 스위스 목사들과 토론의 주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독일 목사라고 했나요? 다른 스위스 목사들과 함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손에 넣고 있었고, 마침내 영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로마서에 대한 그의 주석이 블록버스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롭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연구하고, 그에게 편지를 쓰고, 그가 가르치는 곳을 방문하고, 등등.

그것은 놀라운 블록버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블록버스터였을까요? 개신교 자유주의가 로마서를 포함한 성경을 거의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 20세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새로운 방식, 폭발적인 책이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현장에 나올 의도는 없었지만, 그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바르트가 훌륭한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독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스위스 시민이지만, 그는 독일로 건너가서 교사 경력을 시작하고 여러 독일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교의학을 쓰기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체계적 신학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그는 원래 교의학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독교 교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인 Christian Dogmatics에 적합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니, 그것은 Christian Dogmatics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Dogmatics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목을 기독교 교의학에서 교회 교의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교사 경력을 시작하고 목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그는 교회 교의학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968년에 사망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교회 교의학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의학은 여러 권으로 된 교의학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화해에 대한 교리는 두 권이고, 한 교리에 대한 내용이 1600, 1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의 글을 다 읽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칼 바르트의 저작을 다 읽는 데는 시간이 평생과도 같을 것입니다. 저는 박사 과정에서 화해 과정을 수강해야 했고, 바르트의 두 권, 1800페이지 정도를 공부했는데, 화해에 대한 그 교리에 관한 내용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를 읽고 연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교의학.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히틀러가 집권했습니다. 그는 독일에 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한다.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그와 다른 사람들과 그의 가장 뛰어난 학생은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사람이었다.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그와 다른 사람들은 그가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그들은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리더가 아니라 리더가 아닌 사람이었다.

그는 총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틀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르만 선언이라고 불리는 것의 저자입니다.

여기 목록에는 없지만, BARMEN, 즉 Barman Declaration입니다. 적어주세요. 그는 Barman Declaration의 저자입니다.

바만 선언은 기본적으로 나치 교회에 대해 고백해야 할 신앙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교회가 나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글썄요, 인생에는 오직 한 분의 주님이 계시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만 선언은 그것을 매우, 매우 명확하게 합니다. 좋아요, 이제, 그가 스위스 시민이나 독일 시민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국 본회퍼가 한 것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본회퍼는 결국 감옥에 갇혔고, 본회퍼는 처형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4월 5일은 본회퍼가 감옥에 갇힌 날입니다. 그리고 43년 4월 5일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45년 4월 9일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바르트가 독일 시민이었다면 그는 본회퍼와 같은 방식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스위스 시민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위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위스로 돌아갔을 때, 그의 신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그가 스위스로 돌아갔을 때, 그는 남은 인생을 바젤에서 가르치며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젤입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바젤, 바젤 대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가 칼 바르트 밑에서 학위를 받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바젤이 아니라 바젤입니다. 그러니 바젤의 칼 바르트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시죠, 바젤이에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평생 바젤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안전하고 중립적인 나라에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게 바르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없었고, 그는 두 번째 어거스틴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신학으로 세상에 끼친 영향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이 그의 세상에 끼친 영향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꽤 놀라운 사람이에요. 좋아요, 그럼 칼 바르트죠.

그건 그의 삶에 대한 작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의 신학을 살펴보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도록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나왔나요? 좋아요, 1886년, 1968년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진에 대해서도 뭔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타임 매거진, 그 사진을 아주 자세히 보면, 칼 바르트, 그 뒤에 뭔가가 보일 겁니다. 이걸 타임 매거진입니다. 이걸 여기 미국산 제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로 그 뒤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릴 겁니다.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타임지조차도 칼 바르트 신학의 중심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도 그럴 만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있고, 몇 분 후에 니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라는 걸 알아차리시겠죠. 하지만 제가 칼 바르트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공적 신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인정받았고, 타임지 표지에 실렸고, 대중 신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신학자가 자신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시대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미국 생활과 문화에서 대중 신학자가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 방문은 신학자, 목사, 목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 등 미국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공적 신학자로 인식했던 것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그럼,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꽤 놀라운 사람입니다. 바르트에 대한 이야기,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다른 수업에서 바르트에 대해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마 이 주제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매우 영향력이 큼니다. 두 번째, 그의 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운동을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그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그의 신학에 대해 신정통주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진지함이나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진지함,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그 말씀을 수용하려는 모든 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길들이려는 모든 시도를 공격하고, 쫓아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진지함에서, 그가 쫓아다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 그룹을 쫓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취급하는 학자들을 쫓습니다.

성경, 성경을 열어보자. 나는 학자다. 성경에는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있고, 나는 그 미스터리를 발견하고 알아낼 것이다.

그게 제 일이거든요. 그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치 당신이 성경을 통제하는 것과 같거든요. 마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해야 할 일련의 신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유주의자, 고전적 자유주의자 학자들, 고전적 자유주의자 개신교도들을 쫓습니다. 그는 개신교 자유주의를 쫓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 중산층을 위한 일종의 이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에 있어서 예수는 어떤 종류의 예언적 목소리도, 어떤 종류의 사제적 기능도, 어떤 종류의 왕적 역할도 없는 길들인 중산층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사람들에게 매우 길들여진 중산층 사람들이 됩니다. 그는 성경을 가져다가 자신의 중산층적 이념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만스러워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좋아요, 그가 쫓는 세 번째 그룹입니다. 그가 쫓는 세 번째 그룹, 당신은 이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룹은 사회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는 사회 복음주의자들을 쫓습니다.

이제, 그는 라우센부쉬를 쫓지 않지만, 그는 사회 복음주의자들의 2세대와 3세대를 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만을 만들었고, 성경을 이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 사회적 재건을 가져오는 방법, 세상을 개혁하는 방법에 대한 윤리적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윤리적 텍스트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신과 인간, 신의 타자성과 인간의 죄성 등에 대해 말하는 다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윤리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들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에게 첫 번째 일은 다른 새로운 정통파 사람들에게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칼 바르트에게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진지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자.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에서 꽤 쉽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진지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창조주이자 우주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진지함입니다.

그래서, 번역에 따라,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일 수 있습니다. 신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영어로는 WHOLLY라고 철자할 수 있습니다. 신은 전적으로 또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아니면, 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 그리고 둘 다 바르트에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르고, 거룩하고, 다릅니다.

그는 우리가 아닌 방식으로 거룩합니다. 그는 거룩함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유주의 개신교가 한 일은 하나님을 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개신교에 있어서 신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은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은, 글썄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항상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신은 위층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것이 당신이 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성경에서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새로운 진지함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5초를 드리겠습니다.

그만. 새로운 진지함, 세 번째. 칼 바르트에게서 배운 세 번째 것:

그의 신학에서 영향을 준 세 번째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진지함과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방식.

그래서 바르트의 세 번째는 새로운 진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거나 드러났는지 이해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아요, 칼 바르트가 싫어하는 단어는 종교, 인용-인용,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그가 그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가 종교를 인류,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교를 그렇게 봅니다. 그는 세계 종교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에게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있거나, 우리가 하는 일, 경건함, 또는 우리가 하는 무엇이든, 신에게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나 신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트에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형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모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형성되고 형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계시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 가장 위대한 계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계시된 은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로 선택하신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제, 이걸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저를 기독교 신학 으로 알고 있다면 , 요한복음 1장 14절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구절을 적어두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꼭 적어두세요. 좋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느니라.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을까요? 어떻게 은혜를 나타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오심으로써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그 구절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칼 바르트는 그 구절을 간단히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간단히 신학입니다. 바르트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요한복음 1:14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4가 있다면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것은 요한복음 1:14,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위대한 성육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론의 모든 일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새로운 진지함. 우리는 이미 이것을 언급했지만, 죄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진지함.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반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진지함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진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자이십니다 . 아마도 바르트에게 있어서 ,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을 당신의 죄악에 대한 심판자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요한복음 1장 14절 등을 통해 그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럼, 이 네 번째 요점에서, 우연히 기독교 신학 수업에 누군가 있었나요? 기독교 신학 수업에 몇 명 있었어요. 기독교 신학에서, 우리는 바르트가 잘 아는 존 칼빈의 말을 많이 인용하곤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바르트가 잘 아는 존 칼빈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서두에 신학 수업에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겠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서두에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먼저인지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서로 얽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칼빈이 말한 첫 번째 것,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아는 첫 번째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르트는 그것을 포착하여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아는 첫 번째 것은 당신이 죄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정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 그것이 우리가 사는 문화에 대한 반문화적 메시지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 입니다. 만약 그것이 참이면서 거짓인 질문이라면, 답은 '예, 참' 일 것입니다.

그것은 반문화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에 반항하는 죄인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도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바르트로부터 죄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긴 설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네 번째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새로운 진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진지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주의 개신교는 어떻게든 그들의 정신과 학문과 가르침 등으로 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 당신이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신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르트는 당신이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종류의 개념 등으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에 대한 새로운 진지함. 우리는 어떻게 신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때문에 신을 알 뿐이다. 오직 신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때문에 신을 안다.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공개했기 때문일 뿐.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일 뿐. 그리고 그는 무엇을 요구할까? 그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변증법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신에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에게 더 많이 응답할수록,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여기서 일종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새로운 진지함. 네오-정통주의라는 운동을 바르트와 구별하는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그럼, 당신의 목록을 보면, 그 다섯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그 다섯 가지 영역. 바르트는 개혁 교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칼빈을 잘 알고 칼빈을 잘 해석했지만, 그는 스위스의 개혁 교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파적으로 묶여 있었고, 교파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일종의 세계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유대교, 세계 종교, 기독교를 종교로 언급합니다. 그는 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인류가 신에게 다가가 신을 알고 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바르트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도 맺고 싶어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것 때문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트는 때때로 바르트 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해 긴 토론을 하므로, 우리는 아마도 이것을 바르트 학자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바르트는 보편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회퍼 세미나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 살아날 거야. 그런 것들 말이야. 그래서, 바르트, 그들은 바르트에게 계속 압력을 가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고, 그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지 않았고, 그는 때때로 반발했어.

어느 날, 그는 내가 소문자 u로 시작하는 보편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썄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그가 인간이 여전히 '아니오'라고 말할 자유가 있고, 여전히 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자유가 있으며, 항상 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토론은 세계 종교와 유대교 등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까요? 기독교의 길로 가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렇죠, 알렉산더? 아니요, 그는 목회 사역을 11년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업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평생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설교 장소 중 하나는 지역 교도소였습니다. 그는 지역 교도소에 가서 수감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 매우 친절한 바르티안이지만, 어제 본회퍼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설교한 건 복음의 강조점이 그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래, 그는 많이 설교했지만, 전임 교사가 된 뒤로는 목회 사역을 하지 않았어. 그래.

네.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그는 결국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마르쿠스 바르트는 매우 유명한 신약 학자가 되었고 실제로 미국에서 가르쳤습니다.

피츠버그였던 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커스 바르트는 신약 학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가족이에요.

그는 다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아는 친구 빌 빌러가 세미나에 갔는데, 종종 세미나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로 진행되어서 참석한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국어 구사했습니다.

네. 그는 확실히 두 번째 오거스틴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유럽 문화에서 자랐다면 어차피 다국어를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 알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탈리아어, 아마도 스페인어를 조금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유럽의 운 좋은 사람들은 다국어 세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다국어를 구사했어요. 그렇죠. 바르트에 대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바르트는 흥미로운 사람이예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의 가족은 명목상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는 본회퍼와 비슷해요.

본회퍼는 명목상 기독교 루터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바르트는 명목상 기독교 개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는 신학이 성경과 교회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회퍼와 마찬가지로 더 자유주의적인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성경의 목사였을 때 그 발견을 했습니다.

본회퍼는 13세나 14세 때 같은 발견을 했고, 성경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때 가족에게 신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비슷한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회퍼는 바르트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퍼는 바르트의 두 번째 세대에 속합니다. 바르트의 신학 중 일부는 그가 39세에 죽었을 때입니다. 바르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저는 칼 바르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꽤 매혹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바르트는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 극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복음주의자들, 미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약국 사업을 팔고 아내와 여섯 자녀를 데리고 바젤로 가서 칼 바르트 밑에서 공부하게 한 우리 친구는 인생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젤에서 바르트 밑에서 공부하게 된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신학자의 말을 경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신학의 어떤 뉘앙스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그들이 찾고 있던 일종의 지적인 힘을 발견했고 근본주의에서 찾을 수 없었고 복음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까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많은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바젤에서 바르트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르트가 미국에 왔을 때조차도 바르트와 함께 패널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와 부활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바르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트와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여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무엇이였을까요? 맞아요.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문화권에서 제기된 주제가 아니었고, 그의 독단론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남성과 여성에 관해서, 어떤 의미에서 온 인류 가족은 신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어떤 구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문화적 문제가 아니었고, 그가 미국에 왔을 때조차 그랬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르트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그의 참조 프레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니나 영국의 웨슬리와 같은 경우처럼요. 바르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바르트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칼 바르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신정통주의, 복음주의,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인 니버 형제에게 다가갔을 때 미국 기독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은 미국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신정통주의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세션 21입니다.